

지역 소식통

정읍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

정읍시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집중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고창군이 오는 23일까지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관내 기업을 모집한다.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학비편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완화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고창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채용 시 시간당 2,000원씩 1일 최대 1만6,000원이 지원된다.

기업은 채용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최저시급인 6,470원에 군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서 530원을 더해 시급 7,000원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4대 보험 등으로 지원받게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소방서, 방과후교사 대상 상황별 응급처치 교육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19일 오전 정읍교육지원청 3층 교육장에서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상황별 응급처치 대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한 기도폐쇄 시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완전기도폐쇄에 따른 하임리히법 이론 및 시범, 응급처치 대처 이론교육, 동영상 통한 사례전파와 마네킨을 통한 실습 등으로 진행됐고 호응도가 높아 시종 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

/정읍=김대환기자

대선공약 반영 광폭행보

박우정 고창군수, 서남해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세균 국회의장·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직접 만나 요청

박우정 군수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박우정 군수는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서남해 전력에너지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대선공약 반영 협조를 건의하며 정 의장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으며 이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직접 만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박 군수는 고창군이 인근에 있는 한빛원전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 원전 송전탑과 한진 전력사업센터 시험용 송전탑 305기로 인한 전자기파와 경관 피해 등 그간 전력산업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엄청난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여기에 고창 읍면지역 전체를 잠식하는 해상풍력 단지 건설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까지 빼앗기게 된 현실을 호소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등 지원관련법의 심각한 불균형을 설명하는 한편, 이번 제19대 대선에서 한빛 원전과 한진 전력사업센터를 연계한 서남해 전력에너지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요구했고, 더불어 한진 전력사업센터와 함께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의 반영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울러 전라남도에서 고창(부안~고창~영광해역) 일대에 건설을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과 연계한 '서남해 전력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이 반영됨에 따라 전북(고창)은 바다만 내어주고 배후 연관 산업은 전남이 차지하게 된다며, 전북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산자부장관과 의원실 절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사업이라며 조력발전과 해상태양광발전은 전남이, 해상풍력과

배후 산업은 전북이 연계 추진하는 것에 공감하고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것을 주문해 박우정 군수는 김진표 위원장을 직접 만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군수의 설명을 들은 김 위원장은 소관 분과에 검토를 시키는 한편 16일 지역공약 시·도 의견수렴 회의 시에 전북도청에서 위원들에게 당위성을 강조해 잘 설명하면 긍정적 결과 있을 것이라며 공약반영에 희망을 줬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산업지원 부를 방문해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 민주당 전북지부장, 전라북도도와 함께 대선공약에서 전북과 고창이 소외받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쌀 누렁지로 마을공동체 일구다'

부안계화면 양지마을, 간척농업 중심 6차 산업 활성화 생생 현장회의

간척농업의 중심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생(生生)현장회의가 김중규군수를 비롯한 이병중 계화면장, 군실과 소장과 20여 양지마을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9일 현장감 넘치는 소통을 하려고 계화리 양지마을에 위치한 양지마을 누렁지 공동작업장에서 양지 노인회 생생마을 공동체 대표 김상진의 '6차 산업 유체 쌀 누렁지로 마을공동체 일구다'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지마을 누렁지 공동작업장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군의 지원을 받아 2017년 5월 누렁지 생생 및 관매가 되고 있으며 연 6천만 원 이상 소득 창출 및 연 1,100명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고부가 가치 6차 산업 발전을 마련하고 있다. 또 누렁지 공동작업장 온라인 농업유통망 등 다양한 판매처 확보 및 상품 다변화를 통해 소득을 창출되고 있다.



김상진 양지노인회 생생마을 공동체 대표는 "6차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주시고 애로사항을 들어주시는 등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이번 생생 현장회의를 통해 부안군 6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계화면은 간척농업 6차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중규 부안군수는 "지속적으로 6차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소공동 행정을 통해 6차 산업을 성공시켜 농본도시 부안을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고창군, 살수차 동원 가뭄 대응 '총력'

고창군이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현장에 피해를 덜 수 있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대산면은 최근 지속된 가뭄으로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대산면 중등농사소에서 살수차를 지원받아 물을 공급하며 모내기 작업을 도왔다.

이산면도 가뭄으로 농작물의 생육부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산면 중월리 지역의 논 3ha에 총 400톤의 물을 공급했다.

이산면 직원들은 양수장비를 이용해 가뭄피해 농으로부터 2km 떨어진 고창천 하류에서 물을 끌어올려, 공사현장에 전복도청에서 위원들에게 당위성을 강조해 잘 설명하면 긍정적 결과 있을 것이라며 공약반영에 희망을 줬다.

해리면은 '정감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한 면 전역의 조경수에 지속적으로



로 물주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리면은 면민회와 이장단협의회, 청년회 체육회 등 각 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인력을 동원하고 5톤 트럭과 5000L 용수용 탱크를 지원받아 관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면사무소 관계자들은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이며 비가 내리기 전까지 가뭄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양수 장비를 총동원해 급수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읍면동 복지 허브화 관련 특강 진행

정읍시가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관련 지난 16일 특강을 가졌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강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복지 전달 체계를 읍면동 중심으로 강화하고, '찾아오는 민원해결'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관계자들의 마인드를 높이고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강에서는 김미경(비영리 법인 웰핍 대표)씨가 강사로 나섰다. 이날 김 강사는 민·관 협력으로 민

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 기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행복바이러스 운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바이러스 운동'은 순수 민간자원을 통한 지원금으로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용만 부시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기부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9월까지 집중 하계 방역 소독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감염병 발생 없이 군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집중 하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소독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군 보건소는 마을길 해수욕장, 관광지 등 방역소독 취약지역 1300여개소를 중심으로 군비 2억5000만원을 들여 읍면별로 자율 방역단과 함께 해충구제와 방역소독을 진행해 위생해충 방제에 힘쓰고 있다.

보건소는 특히,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 1일과 15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공무원과 군민들이 함께 페타이어, 버려진 화분, 물 웅덩이 등 모기서식지를 제거하고 야간에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인 고창읍 천변과 공원, 체육시설 등에 해충모기 유인 포충기를 설치해 친환경 모기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등 27개소를 순회방문하면서 실내·외 소독과 장난감 통화차량을 소독해 주는 어린이 간담회에 방역서비스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a cartoon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